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10.(제 9호)

난자동결시술에 대한 관심과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

류지아·장은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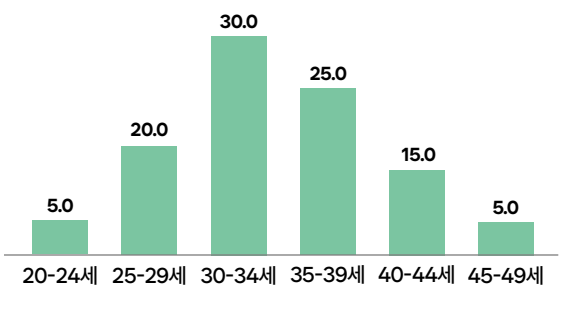
해외 저출생 정책 사례를 통한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2024)
서울시 출산·양육행복 지표 개발 연구(2023)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 과제(2021)

서울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5(통계청, 2024)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대상을 비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까지 확대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비혼 여성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난자동결 시술비를 보조함으로써 기존의 기혼자 및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탈피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잠재 수요 파악 및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 여성의 난자동결시술 의향과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파악하는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책리뷰에서는 해당 정책 수요 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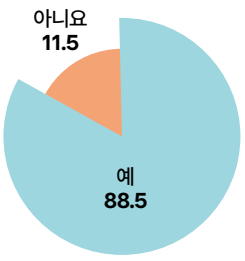
□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사업 정책 수요 조사

▶ 조사 대상: 서울시 20~49세 비혼 여성 800명
▶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202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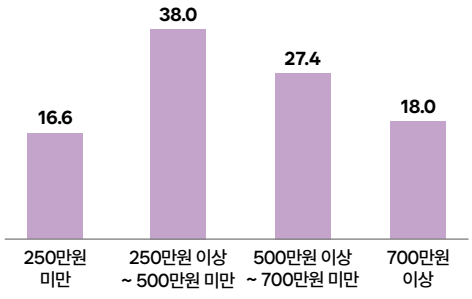
단위: %
n=800



연령



소득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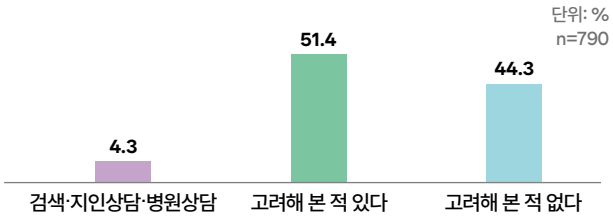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수행한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사업 향후 운영방안」(류지아, 이재경, 장은주, 2024)의 연구 결과를 일부 요약한 자료임.

난자동결시술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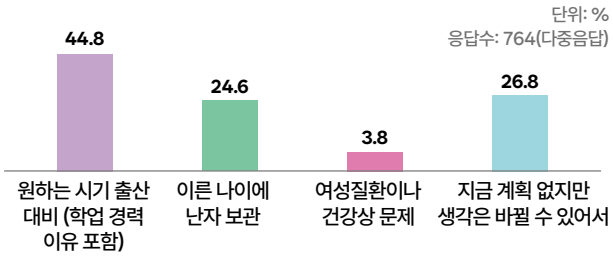
○ 서울시 20~49세 비혼 여성 중 과반이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하였으며 이유는 원하는 시기에 출산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았음

- 난자동결시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서울시 20~49세 비혼 여성들 중 난자동결시술 경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790명에서 난자동결시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51.4%로 나타났음. 자발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거나 지인 혹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도 4.3%였음.



| 그림 1 | 난자동결시술 고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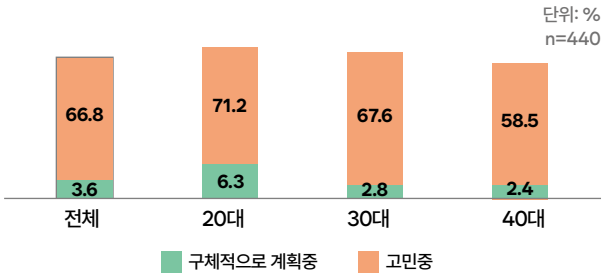
-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학업이나 경력 등의 이유를 포함해 원하는 시기에 출산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44.8%), '지금은 출산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26.8%),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난자 냉동 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24.6%), '여성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3.8%)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 | 난자동결시술 고려 이유 (중복응답)

○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해 본 여성 중 70.4%는 시술을 고민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20대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남

-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해 본 여성들(440명) 중 66.8%가 난자동결시술을 고민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6%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 · 구체적으로 계획중이라고 응답한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6.3%, 30대 2.8%, 40대 2.4%로 20대의 비율이 높았음.
  - · 고민중인 경우도 20대 71.2%, 30대 67.6%, 40대 58.5%로 20대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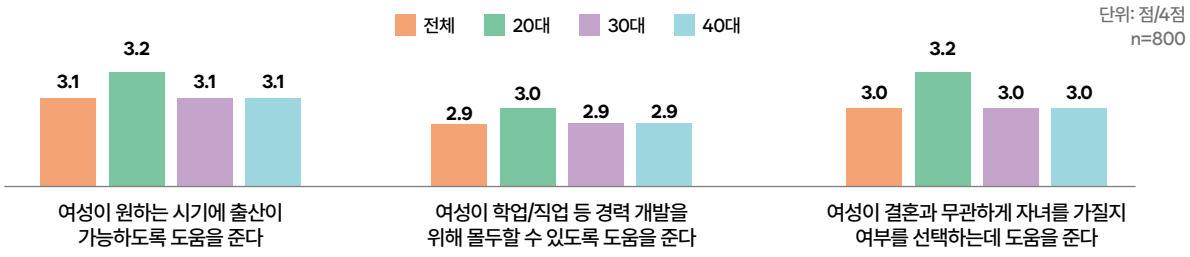


| 그림 3 | 난자동결시술 고려 정도_연령대별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출산시기 선택 및 자녀 계획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비용부담·신체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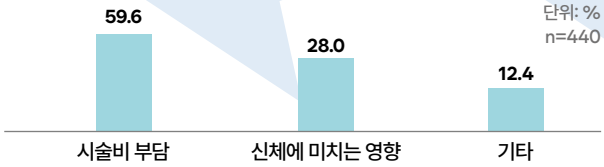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들은 난자동결시술에 대해 '여성이 원하는 시기에 출산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3.1점/4점), '여성이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가질지 여부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3.0점/4점), '여성이 학업·직업 등 경력 개발을 위해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2.9점/4점)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함. 대체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림 4 | 난자동결시술에 대한 인식

* 출산시기 선택 및 자녀 계획에 대해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는 여성 440명은 주로 시술비 부담(59.6%)이나 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28.0%)에 대해 우려된다고 응답함. 이 경향은 난자동결시술 경험자[1]도 동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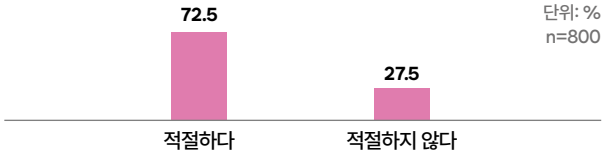


| 그림 5 | 난자동결시술 주요 우려 요인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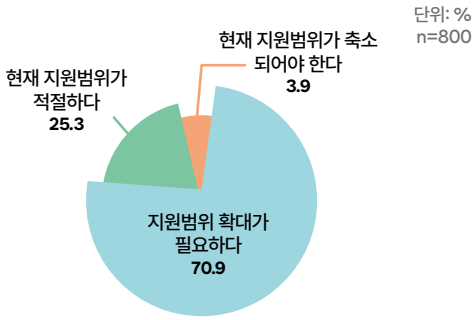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거주기간 조건은 적절하나 보관료가 사업 내용에 포함되기를 요구함

- 전체 응답자 중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시, 거주 요건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72.5%이었고 27.5%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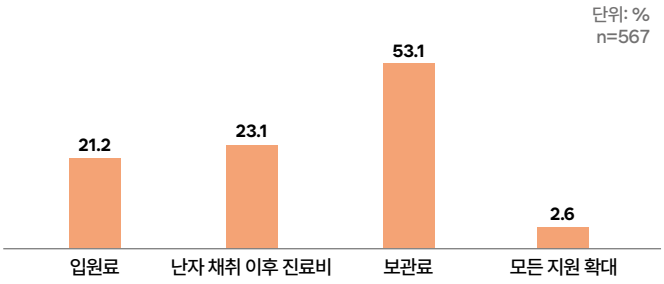


| 그림 6 |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의견

- 지원 범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9%가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함. 지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567명이 구체적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항목은 동결난자 보관료가 53.1%로 가장 높았음. 난자 채취 이후 진료비 23.1%, 입원료 21.2%, 모든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2.6%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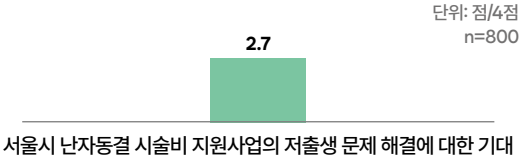
| 그림 7 | 지원범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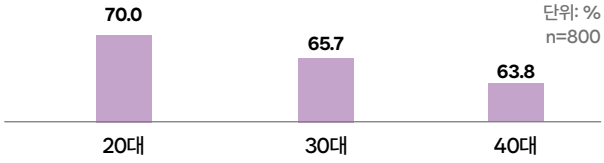
| 그림 8 | (지원범위 확대필요시)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우선 확대 필요 영역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저출생 대응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들은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기여할 수 있다'에 대해 2.7점(4점)으로 평가함.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에 대한 평가를 전체 응답자에 대해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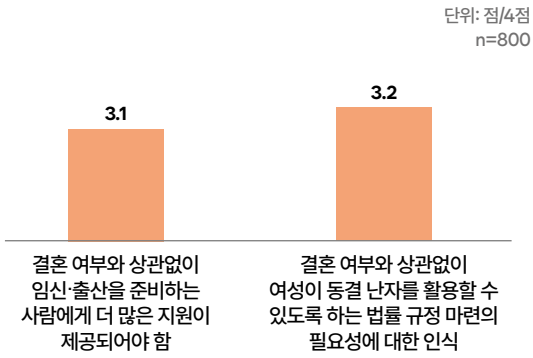
| 그림 9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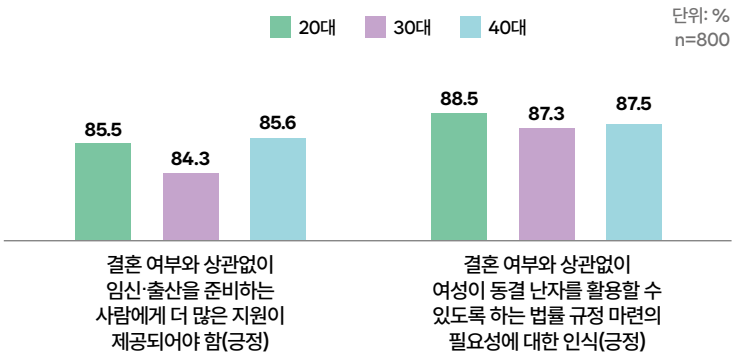
| 그림 10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_연령대별

1) 이번 설문조사에서 난자동결시술 경험자는 총 10명이 표집되었음. 표집된 사례수가 적어 경험자에 대한 결과는 간략하게 소개함.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난자동결시술 경험자는 10명 모두 30대 이상(30대 7명, 40대 3명), 대학교 졸업 이상(대학교 졸업 7명, 대학원 이상 3명)이었으며, 경제활동 중인 여성도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202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강은애 외, 2021) 결과와 유사함.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술 경험자는 주로 30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이었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해 3.1점(4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동결 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에 대해 3.2점(4점)으로 평가함. 즉, 서울시 여성들은 결혼과 상관없이 여성이 임신·출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임신·출산 관련 법·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 제공 필요성' 및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동결 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질문 문항에 따라 패턴은 다소 상이하지만 20대에서 동의율이 높았음.
  · '결혼과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4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20대는 85.5%, 30대는 84.3%, 40대는 85.6%가 찬성함.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원할 때 동결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20대의 동의 비율이 높았음. 20대 88.5%, 30대 87.3%, 40대 87.5%가 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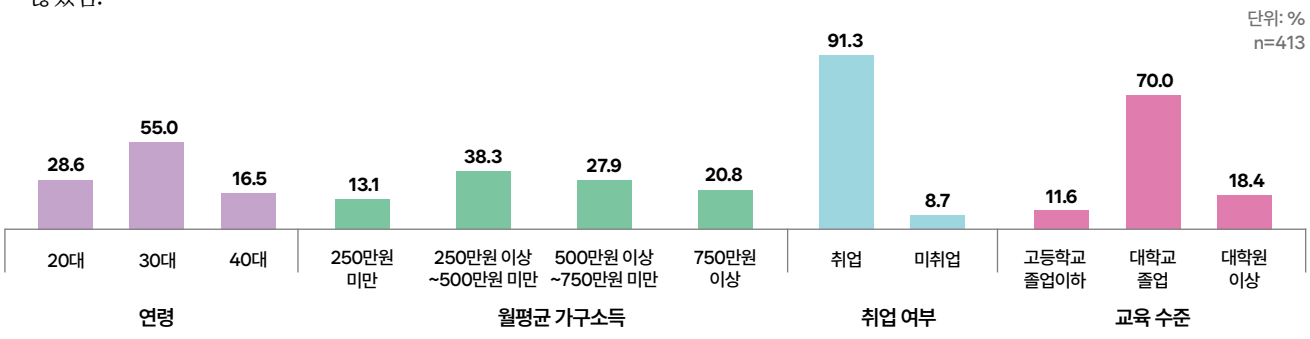
| 그림 11 | 관련 제도 지원 필요성



| 그림 12 | 관련 제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_연령대별

◯ 정책 수요자의 특징

- 정책 수요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여성' 41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분석함.
  ·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30대 55.0%, 20대 28.6%, 40대 16.5% 순으로 나타나 3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음.
  ·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8.3%, 5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27.9%, 750만원 이상 20.8%, 250만원 미만 13.1% 순이었음. 25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적게 나타남.
  · 취업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취업자가 91.3%, 미취업자가 8.7%로 취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교육수준에 따라 분석하면, 대학교 졸업 70.0%, 대학원 이상 18.4%,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6% 순으로 나타나 고학력자들이 많았음.



| 그림 13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2)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임신·출산 관련 법·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인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함.

-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는 여성(440명)을 대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경우에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함.[3] 그 결과, 20대,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이상, 취업자인 경우, 난자동결시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업 참여 의향이 높았음.
  · 40대에 비해 20대가 약 2.3배 사업 참여 의향이 높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에 비해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약 3.3배, 5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은 약 2.2배, 750만원 이상은 약 2.4배 사업 참여 의향이 높았음.
  ·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인 여성이 약 2.6배 사업 참여 의향이 높았음.
  · 난자동결시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약 2.2배 사업 참여 의향이 높았음.

| 표3 | 사업 참여 의향(odds ratio)[1]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는 여성, n=440

변수		사업참여 의향(OR)
연령대[2] (준거: 40대)	20대	2.348*
	30대	1.763
월평균 가구소득 (준거: 250만원 미만)	250만원~500만원 미만	3.273***
	500만원~750만원 미만	2.229*
	750만원 이상	2.411*
취업 여부 (준거: 미취업)	취업	2.579*
난자동결시술에 대한 인식		2.167**

* p<.05, ** p<.01, *** p<.001
주1) 위 모형은 삶의 만족, 주관적 건강 변수, 학력변수 등을 투입한 결과이며 해당변수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유의미한 변수만 제시함.
주2)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여성만 분석하여 사례수가 작아 연령을 10세 단위로 분석함.

요약 및 시사점

○ 출산시기 조절 등 출산 선택권 강화로 기대되는 난자동결시술

- 난자동결시술을 알고 있는 서울시 여성들 중 과반이 시술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자동결시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 특히, 이 경향은 20대와 30대에서 높았음. 원하는 시기에 출산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점이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하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것은 여성들이 출산 의지가 없지 않으며 학업을 마치거나 경력이 안정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술을 통해 출산 시기를 조절하고자 함을 보여줌.
- 여성들은 난자동결시술에 대해 출산 시기 등을 여성이 결정하거나 결혼과 무관하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등 선택권 측면에서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렇지만 시술비에 대한 부담이나 시술이 여성의 신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시술을 주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 서울시는 시술비 부담 등 여성이 우려하는 점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임.

○ 서울시 거주기간 조건은 적절하지만 사업 범위에 동결난자 보관료 포함을 요구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은 적절하다고 평가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 과반이 사업에 동결난자의 보관료가 포함되기를 원했음. 서울시가 현재의 조건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면 보관료 지원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나타남.

3)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업 참여 의향 여부'와 같이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인 경우에 대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해줌.

난자동결시술에 대한 관심과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

○ 20대의 재생산 관련 지원 및 제도적 환경 마련에 대한 호응

-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교적 20대가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저출생 대응 효과 및 결혼 여부와 상관없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이나 여성이 원할 때 동결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음.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주요 정책 수요자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주요 정책 수요자는 경제활동 중이거나 고학력·고소득, 20·30대, 난자동결시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으로 나타남. 20대가 재생산 관련 지원이나 선택권에 대한 제도적 환경 마련에의 높은 호응을 보이면서 난자동결시술에 대한 관심과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에의 참여 의향도 높게 나타남.